

한양대학교 2023학년도 논술전형

인문계열 (오후 2)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1.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지를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가)에 기술된 선택의 문제를 (나)의 ‘압도의 원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나)의 ‘최소극대화 원리’와 ‘최대극대화 원리’ 중 하나에 의거하여 (가)의 ‘갑’의 입장에서 하나의 정책을 선택한 후, (다)를 활용하여 그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1,200자, 100점)

(가)

갑은 어려운 임무를 맡아 외계 행성으로 출발하는 파견대의 일원이다. 파견대원들은 각자 행성의 식민지를 관리하는 역할(A), 식민지 주변을 개척하여 식민지를 확장하는 역할(B), 개척된 식민지에서 농사를 짓는 역할(C), 개척지 외부 미지의 영역을 탐사하는 역할(D) 중 하나를 맡게 될 예정이지만, 대원들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전혀 모른다. 한편 보상과 관련하여, 역할 D를 맡은 사람이 가장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역할 A~C를 맡은 사람이 각각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역할 D를 맡은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의 의견은 3가지 정책으로 나뉜다. 갑은 이 3가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가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정책 I : A, B, C, D의 역할을 맡은 대원은 1인당 각각 110, 130, 130, 140을 얻는다.
 - 정책 II : A, B, C, D의 역할을 맡은 대원은 1인당 각각 100, 100, 70, 190을 얻는다.
 - 정책 III : A, B, C, D의 역할을 맡은 대원은 1인당 각각 100, 100, 100, 110을 얻는다.
- ※ 더 큰 수일수록 각 대원에게 더 좋은 결과를 의미한다.

(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선택지, 상황,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전혀 모른 채로 선택을 하게 된다. 가령 졸업 후 직업 선택을 고민하는 을에게 다음과 같은 3개의 선택지 X, Y, Z가 있다고 해보자.

선택지 \ 상황	경기가 현재보다 더 좋아진다면	경기가 현재와 같다면	경기가 현재보다 더 나빠진다면
X	100	50	0
Y	50	50	40
Z	50	20	20

※ 더 큰 수일수록 을에게 더 좋은 결과를 의미한다.

그런데 을은 자신의 선택이 각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으나,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전혀 모른다고 하자. 그렇다면 을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압도의 원리**는 이러한 경우 을이 어떤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준다. 압도의 원리에 따르면 압도되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한 선택지가 다른 선택지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도 전자가 후자보다 더 좋거나 같은 정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경우, 후자는 전자에 압도되는 선택지이다. 압도의 원리는 을에게 Z를 선택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Z는 Y에 압도된다. 그런데 압도의 원리는 을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택지 X와 Y 중 어느 것도 다른 것에 의해 압도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극대화 원리와 최대극대화 원리도 관련된 확률에 무지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로서 을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 **최소극대화 원리**는 각 선택지가 가져올 최악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이 최악의 결과들 중 최선의 결과를 갖는 선택지를 택해야 한다. 최소극대화 원리에 따를 때 을은 각 선택지가 가져올 최악의 결과인 0, 40, 20 중 최선인 40을 가져올 Y를 선택해야 한다. 반면 **최대극대화 원리**는 각 선택지가 가져올 최선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중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선택지를 택하라는 원리이다. 최대극대화 원리에 따를 때 을은 각 선택지가 가져올 최선의 결과인 100, 50, 50 중 최선인 100을 가져올 X를 선택해야 한다.

(다)

이익을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성취의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공정해 보이고, 각자가 맡은 직무나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역할의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 체계에서 운에 기인하는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만약 이러한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어찌할 수 없는 불운 때문에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협동의 결과물을 분배하는 것이 공정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불리한 처지의 그 불리함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또는 유리한 결과에 대한 기대를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판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떤 선택지가 견디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때 그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선택지들의 최악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 각 선택지들의 최악의 결과가 모두 견딜 만한 것으로 보인다면 각 선택지들의 최선의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둘째, 어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큰돈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각 선택지에서 큰돈을 얻을 기회를 찾지 각 선택지들의 최악의 결과를 비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지들 중 어떤 것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충분하다고 여기고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 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각 선택지들의 최선의 결과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셋째,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선택의 기회들이 여러 차례 남아 있다면 어떤 선택에서 최악의 결과를 만나더라도 이후의 선택에서 더 좋은 결과로 보상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의 기회가 단 한 차례뿐이라면 각 선택지들이 가져올 최악의 결과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